

## 제2장 문 학

### 1. 개 관

보령의 문학은 1920~3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우리 나라의 문학보다 조금 늦은 50년대부터 그 꽃을 피웠다 하겠다. 그리하여 이번 시지에는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문학 활동만을 기술하였다. 또한 작품은 작고문인에 한하여 실었으며, 출향문인을 우선하였고 작고문인을 앞에, 현존하는 문인은 가나다순으로 소개하였다. 재향문인 또한 장르별로 구분하여 가나다순으로 소개하였으며 문학단체도 가나다순으로 소개하였다.

### 2. 보령의 문학

보령은 충청남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아름다운 고장이다. 지형적으로 빼어난 오서산과 성주산이 있으며 그 기슭으로 석학, 상신, 문신 등이 은거하면서 글을 남겼다. 또한 많은 선비와 학자, 義士, 열사 등이 이 고장에서 출생했거나 기거하며 글을 남겼으며 그 맥을 이으려는 후손들의 학문과 글에 대한 집념도 대단했다.

멀게는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딘 국보 8호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가 있는데 보령 특산물인 오석의 비문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구산선문의 하나인 성주사지에 있는 이 비문은 신라 삼절의 한 분인 최치원 선생의 글이다. 가깝게는 조선 후기 학자, 문신, 기인이었던 토정 이지함 선생의 묘(주교면 송학리)가 있다.

보령과 관련된 역사적 문인으로는 아계 이산해, 『성당집』의 저자 정혁신, 동계 이산광, 구봉 송익필, 사가 유희근, 김성희, 백낙창, 신현상, 신학선, 김승렬 등 뛰어난 문인들이 조선 시대에 활동했다.

보령지역 출신으로 주요 현대 문학에 이름을 올린 문인들로서는 시에 백성남, 임영조, 홍완기, 최문휘 등이 있다.

우리 지역 출신의 소설가가 본격적으로 문학사에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다. 근대 계몽기와 일제강점기에도 적잖은 활동이 있었겠지만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이문희(李文熙)를 비롯하여 최상규(崔翔圭), 최진우(崔鎭宇), 이문구(李文求), 김성동(金聖東), 최시한(崔時漢), 이해경(李惠敬), 김종광(金鍾光) 등 한국 소설사에 그 족적이 뚜렷하거나 현재도 활약 중인 문인들이 많다. 평론가로는 신동욱, 권영민이 있고, 수필가로 이병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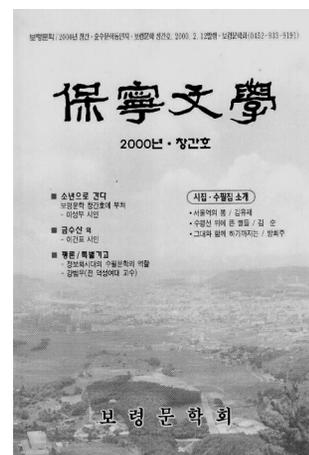
또한 서울대 언어학과 이현복 교수는 1936년 보령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어의 표준 발음』, 『한국어 표준발음사전』 등 학술부문에서 활약하고 있다.

보령의 지역 문인들은 향토 문학 단체를 결성하여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령문학회>(1999), <보령수필아카데미>(2007),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2002), <(사)한내문학회>(1989), <여성문학보령예지회>(1985)를 통하여 다수의 문인이 배출되었다.

## 1) 보령문학회

1999년 <한내문학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보령시가 됨에 따라 <보령문학회>로 개칭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이 <한내문학회>를 존속해 나갔고 보령문학회는 이때부터 독자적으로 창간호를 발간하며 문학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1999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보령문학』 지 제9집(2007년) 발행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보령청소년문학상> 응모 작품집인 『날개』를 발행하는 등 청소년의 창작활동에도 관심을 보였다.

2007년 난립된 지역 문학단체의 화합과 발전적 통합으로 문학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문학』 제9집 발간 후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와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같은 해 11월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결성, 양 문학단체의 통합에 적합한 정관개정안을 만들었으며 보령문학회(나정애)와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김정원)의 각 회원들에게 통합에 대한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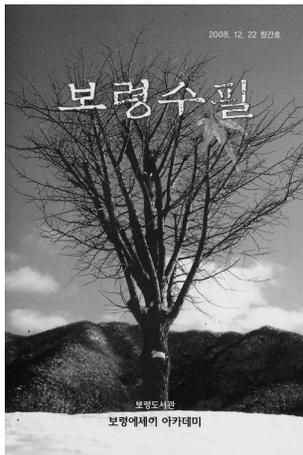


여부를 물어 공히 통합을 가결하였다.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의 문학지인 『보령문단』 제호는 『보령문학』으로 이어가고 통권은 『보령문단』지의 순서를 따르기로 하였다.

주요 활동회원으로 강태현, 김선자, 김유제, 김정원, 나정애, 박만춘, 박선희, 박순이, 방희주, 배금령, 손광야, 송두석, 신동근, 원덕재, 유근평, 이무자, 임병익, 조종금, 조영호, 조현근, 채규병, 천대진, 최관수 등이 있다.

## 2) 보령수필아카데미

2007년 2월 2일 개강하여 보령도서관(문화교실)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수필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



1년 2학기로 하고, 학기당 15주 단위 학습과정으로 학기별로 수필문학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며, 학기당 1회씩 문학역사 기행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임간수업으로는 2008년도에 개화예술공원에서, 2009년도에 보령댐 물빛공원에서, 무창포 해수욕장에서는 일본문인들과 추진한 바 있다.

지도교수는 강범우 전 덕성여대 교수이며, 2008년 12월 제호를 <보령수필>로 하여 창간호를 발행하였고, 2009년도 12월에는 제2집을 발행하였다. 박미란, 이용예, 권정숙, 장정자 등이 <문학시대>, <뿌리문학> 등으로 2009년에 등단하였다.

주요활동 회원으로 권정숙, 김동안, 김수자, 김순환, 김영주, 김은정, 김정미, 김정자, 박미란, 박용서, 박중분, 박혜원, 배석순, 서순원, 송미영, 신경옥, 오황연, 이도선, 이명희, 이용예, 이은경, 이은규, 이주애, 장정자, 홍이환 등이 있다.

## 3) (사)한국문인협회 보령지부

2002년 문상재를 비롯한 18명의 문학인들이 한국문인협회 보령지부를 설립하여 인준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보령지역 문학이 제도권 내로 들어가게 되었다.

- 2002년 8월 20일 보령문인협회 결성
- 2002년 10월 16일 (사)한국문인협회 인증

- 2002년 11월 9일 보령지부 정식출범

이렇게 출발한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는 제5호까지 『보령문단』 지를 발행하였고, 보령문학회와 통합하면서 제호를 보령문학으로 변경하여 2009년 현재 『보령문학』 제7호를 발간하였다. 명실 공히 보령지역 문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본 지회는 시부문 31명, 소설부문 2명, 수필부문 10명, 아동문학부문 2명 등 총 4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 대부분이 문단에 등단하였으며 5개 분과로 나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지부장은 문상재에 이어 2007년부터 김정원이 맡고 있다. 주요 활동 회원은 강태현, 김나인, 김명래, 김선자, 김정원, 김진경, 나정애, 문상재, 박만춘, 박선희, 박순이, 박용서, 방영순, 방희자, 배금령, 백도현, 성낙규, 손광야, 송계숙, 양희영, 용미자, 원덕재, 이도선, 이명은, 이명희, 이무자, 이미숙, 이영열, 이은자, 이장우, 이혜실, 조성인, 조종금, 조현곤, 천대진, 최관수, 최은순, 최종배, 한숙경 등이 있다.



#### 4) (사)한내문학회

1989년 12월 한국문단에 명성을 날리던 이 지역 출신 소설가 이문구가 고향에 내려와 몇몇 문학에 뜻이 있는 사람들과 <대천문학회>를 만들었다.

1990년 9월에 창간호 발간을 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칭 '대천문학 신인상' 작품 공모를 실시하여 시, 산문 등 50여 편의 응모 작품 가운데 시 부문에 최대규의 「징검다리」를 당선작으로, 산문부문에는 이상란의 「사모곡」을 가작으로 선정하였다.

1991년 2월 <대천문학회>를 <한내문학회>로 개명하고 『한내문학』 창간호를 내기 위한 원고를 모아 244쪽의 문학지

2,000부를 발행하여 9월 14일에 '대천문화원'에서 지역기관장 및 각 문화 단체장, 그리고 지역유지, 문학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내문학』 창간 기념식을 가짐으로써 보령문학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이어서 1992년에는 『한내문학』 2집을 발행하여 5월 16일 출향문인 홍완기, 이원복, 김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 기념회를 갖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문학의 열기가 고조되고 시민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갔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문학의 뿌리를 내린 한내문학회는 많은 문학인을 배출하고 양성하며 지역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8년 11월에 ‘재단법인’을 설립했으며, 2009년 3월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2006년에 <문예사조>로 7명이 등단하는 등 28명의 문인 중 19명이 <문예사조>로 등단한 문인이라는 이례적인 특징이 있다. 주요 활동 회원으로 강영민, 강창원, 고상혁, 김문경, 김선옥, 김순희, 김웅현, 김유제, 김혜정, 문영옥, 박성열, 박혜숙, 방영주, 배윤희, 송동훈, 신대호, 신승환, 신양호, 신현숙, 오금자, 유일하, 윤현구, 이근모, 이덕영, 이덕훈, 이미숙, 이연순, 이영열, 이원길, 이원태, 이임구, 이정석, 이종영, 이형우, 임남순, 조성인, 조소연, 조춘자, 최용락, 최도진, 최옥순, 최양희, 최정숙, 한동희, 황인영, 홍성수, 홍성익 등이 있다.

### 5) 여성문학 보령예지회

보령지역의 여성문학 단체인 <보령예지회>는 1985년 보령도서관에서 주부 9명이 <예지회(주부독서모임)>를 결성하였으며, 1996년 <보령예지회>로 개칭하고, 2007년 <여성문학 보령예지회>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9년 5월 창간호 『한여울』 발행을 시작으로 2009년 현재 제11집까지 발행하였다. 주부독서회로 출발한 <여성문학 보령예지회>는 현재 다수의 시인과 수필가를 배출하고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활동 회원으로 김견남, 김은정, 김은진, 김정자, 박혜원, 서양미, 성낙규, 손혜경, 신경숙, 신동미, 이영열, 이정자, 이명희, 이정숙, 전명희, 정태경, 최은순, 한은희 등이 있다.



## 3. 출향 문인

### 1) 시인

○ 임영조(任永祚) : 본명은 임세순이며 1943년 주산면 황물리에서 태어났다. 주산중학교를 졸업하고 명천동으로 이주하여 성장하였다. 서라벌예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1970년



『월간문학』 제6회 신인상으로 시 「출항」이 김현승, 서정주, 박두진, 김남조에 의해 추천되었고 1971년에는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박남수(朴南秀), 서정주(徐廷柱), 김종길(金宗吉)에 의해 「목수(木手)의 노래」가 당선되어 다시 한 번 그의 필력(筆力)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꾸준하고 활발한 시작(詩作) 활동을 통하여 1990년대에 들어 많은 평론가들과 문학인들로부터 주목받는 시인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제1회 서라벌 문학상, 제38회 현대문학상, 제9회 소월시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 및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에 출강하였다. 시집으로는 『바람이 남긴 은어』, 『갈대는 배후가 없다』, 『흔들리는 보리밭』, 『귀로 웃는 집』 등이 있다. 다음은 그의 시편 중에 「등나무 아래서」이다.

이 세상 무슨 말이  
애무 보다 진하고  
간절할 수 있으랴

마주보면 볼수록 그리운 사람  
사랑에 눈먼 내외가  
지루한 외설처럼

온몸으로 칭칭 껴안고 돌자

삼삼 칠 박자로 등꽃이 핀다.

어화둥둥 내 사랑  
청사초롱 자잘하게 켜놓고  
참을 수 없는 욕정의 덩굴손으로  
어지러운 세월을 틀어 올리는  
저 낮 뜨거운 일심동체(一心同體)여,

열락과 아픔이 함께 꼬이는  
금슬지락의 격렬한 합궁(合宮)  
몸을 엮고 사는 일이 그리 좋을지  
낄낄낄낄 등꽃이 흐드러지고  
문득 풍문처럼 퍼지는 향긋한 몸내  
인근에 자자하다.

임영조는 신춘문예라는 관문을 통하여 문단에 화려하게 등단하였음에도 정작 그의 첫 시집은 등단 이후 십 수 년이 흐른 뒤에야 『바람이 남긴 은어』(고려원, 1985)를 출간하게 되었다.

그의 두 번째 시집 『그림자를 지우며』가 1988년 <현대문학사>를 통하여 출간되었다. 문학평론가인 조남현은 임영조의 첫 시집이 한 시인으로서의 진정한 제2의 출발을 알리는 것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했다면 제2의 시집은 그 동안 십 수 년 간 공백기의 의문을 가셔주는 독특한 관심세계와 창법을 지닌, 그리고 안정감과 견고함이 뚜렷한 발

성법을 지닌 작품들이라고 평하였다.

그는 주산중학교 시절 신동엽 시인의 눈에 띄어 그의 시적 재능이 발굴되었고 서라벌 예대 문창과에 진학하면서 한국문단의 김동리, 서정주, 박목월, 김구용, 김수영 등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거장들의 수하에서 문학을 배우며 그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 **홍완기(洪完基)** : 보령출신 시인으로는 현대시의 첫 장을 연 홍완기는 1959년에 『思想界』 지에 박목월, 박남수 등의 추천을 받아 「焦土의 章」, 「線」으로 등단하였다. 1932년생인 그는 1970년에 『술을 마시고 바위를 보면』의 시집을 냈으며, 1980년 『남한산 광대놀이』, 1986년에 『얼굴』, 1998년 『추락하는 비상』, 『이미지로 있는 형상』 등의 시집을 내면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다가 거주하는 경기도 성남에서 노환으로 2004년에 별세하였다.

다음은 그의 대표적 작품 「눈 오는 날에」이다.

눈 오는 날에  
연신  
담배를 빨고  
있으면  
나는  
담배가  
된다.

먼 녘에 눈이 쌓인다.  
거기 외딴 술집을  
그 지붕 위에 무겁게  
침강하는 하느님의 공간  
  
누구인가 손을 흔들고  
있다  
나는 이 때  
마지막 담배에 불을  
붙이며

눈물나는데  
나의 친구여  
나는 타고 있는데  
넌 내 깜깜한 인후(咽喉)  
속의, 상승하는 숨 가쁜 기류  
속의, 가슴 속의 어디쯤  
짚어 왔는가.

착한 사람이여 지금  
어디쯤 짚어 가고 있는가.  
  
하느님처럼 외롭게 살아온  
또 살아갈 무상(無償)의 하늘  
아래 서서  
눈을 맞으며  
나는  
이제 술이 되고 싶다.

○ **김윤자** : 1953년 보령시 청라면에서 출생하였으며 공주고대를 졸업했다. 2000년 <조선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문단에 나서게 되었으며 (사)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충남문인협회,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으로는 『별 하나 꽃불 피우다』 등이 있다.

○ **백성남(白成男)** : 1947년 보령시 청소면에서 출생했다. 그는 1983년 <현대문학(現代文學)>과 <시문학(詩文學)>지를 통하여 등단하였으며 등단 이전인 1981년에 『해부루조』를 출간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는 『탕탕 별곡』, 1987년에는 『獨說大字報』 등 시집을 발간하였다.

○ **이양우(李洋雨)** : 1941년에 보령시 주산면에서 출생하였다. 1974년 종합 문예지 <풀과 별>에 신석정, 이동주의 추천으로 등단하였으며 1984년 배달문화상(시부문)을 수상했다.

또한 2005년에는 충청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사)한국문인협회회원이며 <문예춘추>와 <한국육필문예보존회(시인과 육필 시)> 대표를 맡고 있다.

시집으로는 『서리꽃 편지』(1999), 『천년 무』(2004) 등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장편소설 『육바라밀』을 발간했다.

보령의 본가를 수시로 찾으며 보령에서 문학 행사를 자주 열고 있으며 성주면에 있는 개화예술공원 내에 한국육필문예비 공원을 조성하고, 『성주문화』라는 문예지를 제4집까지 발간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0월 27일 성주면에 있는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입구에 ‘한국현대문학 100주년 기념탑’을 세우는 일을 주도하였다.



한국현대문학 100주년 기념탑

○ **이혜령** : 보령시에서 태어나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92년<조선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하였다. 그는 한내문학 초창기에 참여하여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해오다가 결혼하여 잠시 휴식기도 있었다. 현재 (사)한국문인협회와 안산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집으로 2005년 『미친 사랑의 노래』를 출간하였으며 ‘이혜령 논술 글쓰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동시와 동화도 쓰고 있다.

○ **임석순** : 충남 보령 출생. 1986년 <현대시학>으로 추천 받아 등단하였다. 시집에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바칩』 등이 있다.

○ **장윤태(張允泰)** : 1942년 충남 보령에서 출생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월간 <순수문학>에 『너무 노여워 마세요 어머니』를 발표하며 문단에 올랐다. (사)한국문인협회, 한국순수문학인회, 구리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시집으로는 『그리움이 남산만큼 커질 때』(1998년), 『시집간 딸에게서 온 첫 전화』(2001년), 『황혼에 다시 쓰는 자화상』(2002년), 『외사랑 38년 그 마지막 종이 울릴 때』(2005년), 『별빛바다』(2007년) 등이 있다.

○ **최문휘** : 1929년 보령시에서 출생하였고,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1회로 졸업했다. 1972년 「비(碑)」와 「광야(曠野)」로 서정주, 한성기, 이원섭의 추천으로 『시문학』에 등단하여 시집 『비』를 남겼다. 1967년 충남도 문화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대전시 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충남도 향토문화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대전의 전통과 유래』, 『여기, 대전이다』, 『대덕의 산하』 등 50여 권이 있다.

## 2) 소설가

○ **김영진(金榮珍)** : 보령시 미산면에서 출생했다. 1992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늦가을」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게 되었다. 「나비와 토끼풀」 등의 작품을 선보이며,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을 배경으로 한 소재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썼다. 하지만 그의 문학 활동은 제대로 펼쳐볼 겨를도 없이 1994년 3월 심장병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누구 못지않게 고향을 사랑한 그는 틈나는 대로 고향 보령을 찾아 문상재, 안학수, 장병천 등 고향의 문우들을 만나며 보령지역 문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었다.

그의 저서로 1990년에 펴낸 시집 『내 고향 청솔밭』이 있다. 그의 시집에는 어릴 적 가난하지만 정감 넘치는 아름다운 추억이 묻어 있고, 시골의 질박하고도 가슴 찡한 사연들이 들어 있다.

○ **이문구(李文求)** : 우리 지역 출신의 대표적 작가일뿐더러 한국소설가가 가로질러 가지 않으면 안 될 커다란 관문(關門)이다. 1941년 지금의 보령시 대관동, 일명 갈머리

(冠村)에서 태어났고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1963년에 졸업한 그는 1966년에 단편소설 「다갈라 불망비(不忘碑)」, 「백결(百結)」이 김동리(金東里)에 의해 <현대문학>에 추천 완료 되면서 문단에 등단하였다. 오랫동안 <월간문학>, <한국문학>, <실천문학> 등의 편집 일을 통해 한국문학의 현장을 지켜왔으며 한국의 진보적 문인단체를 대표하는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문단의 좌우를 통합하고 남북의 민간교류에도 힘쓰다가 2004년 지병으로 타계, 자신을 키워준 고향의 뒷산에 영원히 잠들었다.

한국문학작가상, 요산문학상, 농민문학상, 만해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소설을 비롯한 그의 문학 세계는 총 26권의 『이문구 전집』(랜덤하우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초기 소설은 도시 체험과 소위 밑바닥 인생들이 ‘몸으로 사는’ 신산스런 삶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풍진 세상을』(1970), 『장한몽』(1972) 같은 작품이 이를 대표한다. 그의 문학적 본령이 뚜렷한 작품은 『관촌수필』(1977)과 『우리동네』(1981) 연작이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전쟁과 고향, 농촌과 산업화가 관통한 한국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살아 꿈틀대는 인물과 그들의 언어로 형상화하였다. 후기 소설은 90년대 이후 농촌과 세태의 변모를 다룬 『산너머 남촌』 계열과 역사와 내면의 관조가 특징인 『매월당 김시습』, 『내 몸은 너무 오래 서있거나 걸어왔다』와 같은 계열의 작품을 남겼다. 그의 문학 속에 담긴 우리 지역의 풍경과 말의 향취를 잠깐 소개하기로 한다.

성주산 깎뿔기에 첫 자동차 불만 뜨면 오얏골로 돌아누운 신작로도 새벽길을 벗었고, 이슬밭 송아지 워낭 소리가 굴뚝 모퉁이를 흔들어, 추녀 끝에 깃들었다. 덩블로 쫓겨난 참새때 짜그락 거리는 게 여간 시끄럽지 않은데, 우물가 매실나무 삭정이 끝에선 덩달아 까치가 수선스레 풍을 쳐, 질동이 이자 엉덩이춤이 불품인 칠칠잡은 계집애들 한눈파는 꼴을, 해장 삼아 읊내 나가 처운 인분지게 붓독에 벗어놓고 물 타던 동네 머슴들은 병어리로 웃곤 했다. 그리고는 그뿐이었다. (단편 「이풍천」 중에서)

신평리 뒷산은 체격이 듬직하고 젊어 아무나 넘나들 수 없게 구색을 갖춘 조용한 산이었다. (「장한몽」 중에서)

“나 봐유. 맥은 워디 기시길래 이러시는지 몰라두, 요란이 과허실 건 읊는규. 찬밥 그지는 문전 거절을 해 보낼 수 있어두유, 물 한바가지 동냥을 쫓는 건 풍속을 어그리는 일이유. 허물며 양석이 타서 지나가는 또랑물 좀 잠깐 여뤘다구, 뭐유? 안보적인 문제유? 풍년 곡석 일년 양석이면 송년 곡석은 삼년 양석이유, 날쫓 더웁다구 되는대루 험박허시면 클나유, 해 저물라면 멀었으께 말이 되는 말만 해두 넉넉허유.” (「우리 동네 김씨」 중에서)

이문구 문학은 소설뿐만 아니라 다수의 산문집, 특히 동시집까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87년 처음으로 낸 『개구쟁이 산복이』 이외에, 1997년 『이상한 아빠』, 2003년 『산에는 산새 물에는 물새』가 있다. 영롱한 언어 조탁과 꾸밈없는 생활묘사로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아래에 소개할 「가을비」 외에도 다수의 동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 〈가을비〉

오다 말다 가랑비	가을 들판에
아기 염소 젖는	두메 외딴집
들길 시오리	여물 쏜 굴뚝에
개다 말다 가을비	연기 한 오리

○ **이문희(李文熙)** : 1933년 보령시 미산면에서 태어났다. 1957년에 단편 「우기(雨期)의 시(詩)」, 「왕 소나무의 포효(咆哮)」로 <現代文學>에 추천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그 후 「하얀 패인」(1958), 「조우기(遭遇記)」(1959), 「하모니카의 계절」(1961) 등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하였고, 1963년에는 <현대문학>지에 장편소설 「흑맥(黑麥)」을 연재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모니카의 계절」은 1961년 <사상계> 11월호에 발표된 작품인데, 상징적인 것을 기조로 하여 이루어진 유니크한 소설로, 그의 작가적 능력을 엿볼 수 있다.

「흑맥」은 감부기병에 걸린 보리처럼 사회의 밑바닥에서 버림받고 어두운 생활을 하는 탕자(蕩子)의 단면을 부각시킨 문제작이다. 소설의 무대는 서울역 주변의 뒷골목이다. 전쟁으로 버림받은 등장인물들의 밑바닥 생활은 그들 자신들의 선택과 판단으로 말미암은 타락자의 행장(行狀)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신의 각성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놓치지 않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삶 속에 허무와 무질서로 점철된 전후 사회의 단면을 유려한 문장으로 성취한 이 작품은,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소설집에 『옥(玉)피리』, 『산향기(山鄕記)』, 『하모니카의 계절』, 『흑맥』, 『산바람』, 『소설 징기스칸』 등이 있고, 장편 『흑맥(黑麥)』으로 제11회 현대문학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장편 『산바람』(1980)으로 1981년 대한민국문학상을 받았다. 그는 1990년 10월 별세하였다.

○ 최상규(崔翔圭) : 1942년 보령시 천북면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56년 <문학예술>에 단편 「포인트」와 「단면」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그는 많은 작품을 썼다기보다 독특한 작품과 활동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오랫동안 대학교수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본격적인 소설 창작에 전념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과 소설』, 『단편소설의 이론』 등 번역가로서도 적지 않은 업적이 있다.

「포인트」는 징집영장을 받은 젊은 문학도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도 그렇지만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대체로 거대한 메커니즘에 억압 받는 인물이다. 메커니즘에 말살되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참다운 인간으로 회귀하려는 욕망을 내비치곤 한다. 초기 작품들은 억압적 상황에 차가운 냉소와 야유가 저변에 깔려 있는데, 특히 짧은 문장으로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등장인물의 내면을 숨 가쁘게 추적해 들어가는 이른바 ‘스타카토 문체’가 특징적이다. 후기로 갈수록 양상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상규 소설은 줄곧 존재의 자유로움이 현실과의 관계에서 왜곡되고 가려지고, 훼손당하는 문체를 놓지 않았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작품과 번역 일에 몰두하며 술과 함께 살던 그는 슬하에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남겨두고 1994년 1월 16일 세상을 떠났다. 묘지는 충북 영동 순복음교회에 있다. 소설집에 『형성기』, 『그 어둠의 종말』, 『겨울 잠행』, 『새벽 기행』 등이 있다.

○ 최진우(崔鎭宇) : 보령시 남포면에서 출생했다. 1959년에 단편 「이등병원(二等病院)」, 「인간대결(人間對決)」로 <자유문학>을 통해 문단에 데뷔했다. 1962년에는 소설 『비 개인 한낮』을 출간하였으며 「불신의 영토」, 「문산 맥」, 「행운의 여행」 등의 단편을 발표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중앙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최진우 생가 앞에서 이문구, 문상재, 이혜실

○ 김성동 : 1947년 청라면에서 출생하였다. 보령의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한학 수업을 받으며 성장했고, 유년기 시절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가 남긴 상흔 속에 헤매다 18살의 나이로 지효대선사의 상좌가 됐다. 서라벌고를 중퇴 후 1966년 입산하였다. 그는 입산(入山)하여 불문(佛門)에 들면서 문학의 터전을 닦았으며 1975년 <주간종교>의 종교소설 현상모집에 「목탁조」가 당선되었는데,

이 작품으로 인해 승적이 박탈되었다. 1978년에 불가에 몸을 담고 살아가던 시절에 풀어헤친 인생의 실타래를 가다듬어 중편 「만다라」를 발표, <한국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나왔다. 이후 「엄마와 개구리」, 「가숙(假宿)의 땅」 등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의 출세작이자 대표작이기도 한 「만다라」는 1979년에는 작가 자신이 장편으로 개작한 바 있으며, <TV문학관>을 통해 드라마로, 임권택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안정효에 의해 영어로 번역, 출판되기도 하였다. 섬세하고 유장한 독보적 ‘조선 문체’로 한국 근현대사의 상처와 구도(求道)의 여정에서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문체작들을 발표해왔다.

그의 작품으로 『피안(彼岸)의 새』, 『오막살이 집 한 채』, 『붉은 단추』 『국수(國手)』 등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부치지 않은 편지』, 『그리고 삶은 떠나가는 것』 등이 있다. 현대불교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신동엽(申東燁) 창작 지원금을 수상(1985)하기도 하였다.

작가의 변을 일부 옮겨 놓는다. 「만다라」라는 묵직한 작품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그였지만, 처음에는 원고 작성법조차 몰라 난감해 했으며, 읽을거리와 묘사의 한계를 절감하던 시절의 독백을 엿볼 수 있다.

소설이라는 것을 처음 써 보았던 것은 초등학교 오학년 때였으니 업(業)이었던가 상상력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만화책을 집어 던지고 나서 잡게 된 것이 소설책이었다. 외로움 때문이었지만 백지에 먹물이 찍힌 것이라면 콩나물을 싸온 신문지 쪼가리까지도 숨넘어가게 읽었다.

그리고 이백 자 원고지로 쉰 장쯤 될 분량의 소설을 공책에 써 보았던 것은 순전히 가슴앓이로 고통을 당하시는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였다. 창자가 끊어지는 창망 중임에도 자식이 지었다는 소설을 낭송으로 들으며 엷은 웃음기를 보여주시던 기억이 아련한 그리움으로 떠오르는데 주인공이 서울로 가는 대목에서 그 소설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으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서울 묘사를 해 볼 재주가 없었던 때문이었다.

소설가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이 할일 많은 사바탁세에서 기껏 잔소리꾼이 될 줄은, 부처가 되고 싶었다. 이 어둡고 답답해서 숨 가쁘게 힘겨움기만 한 오락악세의 이치와 저 우주 삼라만상의 참된 이치를 막힘없이 두루 깨친 부처가 되어 이세상의 온갖 악을 떨하고 선을 반드시 행하고 싶었다.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 영육을 함께 던지는 삶을 살고 싶었다. (「고쳐 짓고 나서」 중에서)

○ **김종광(金鍾光)** : 1971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8년 『문학 동네』에 단편 「경찰서여, 안녕」이라는 개성 있는 작품을 발표해 문단에 이름을 내밀었다. 2000년에는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해로가」가 당선되기도 하였다.

변두리 인생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들의 사소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질퍽하게 풀어내는 설정이야말로 초기 소설의 특징 중 하나였다. 이를 통해 농촌의 현실과 도시의 허위의식을 통렬하게 풍자하는 것이라든지 확실스런 문체와 해학을 바탕으로 하는 발랄한 소설의 분위기는 문단으로부터 ‘작은 이문구’라고 불리며 신세대 소설가의 한사람으로 명명되고 있다.

대산창작기금, 신동엽 창작기금(2001년)을 받았으며, 2004~2006년, 민족문학작가회의(현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한신대 겸임교수로 소설 창작 강의도 하고 있다.

소설집으로 『경찰서여 안녕』(2000), 『모내기 블루스』(2002), 『짬뽕과 소주의 힘』(2003), 『낙서문학사』(2006), 『처음 연애』(2008)와, 중편소설 『71년생 다인이』(2002), 장편소설 『야살쟁이록』(2004), 『울려낙원국』(2007), 『첫경험』(2008) 등이 있다. 부인, 일곱 살 난 아들과 함께 수원에서 전업작가로 살고 있다. 등단 10년 만에 책을 10권 냈을 만큼 열정적으로 쓰고 있다. 한국 문학에서 ‘이야기꾼’ 작가의 계보를 잇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래를 더욱 주목해야 할 소설가다.

○ **이혜경(李惠敬)** : 최근까지도 꾸준한 필력을 선보이고 있는 이혜경은 1960년 보령 대천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1982년에 무기력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가족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중편소설 「우리들의 떨켜」를 『세계의 문학』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이후 위기에 빠진 가족관계를 그린 장편소설 『길 위의 집』(1995)을 시작으로, 『그 집 앞』(1998), 『꽃그늘 아래』(2002), 『틈새』(2006) 등을 발표하였다. 섬세하면서도 경솔하지 않은 과작(寡作) 스타일로 꾸준한 작품을 인정받으면서 오늘의 작가상(1995), 한국일보문학상(1998), 현대문학상(1998)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수문학상(2006), 동인문학상(2006)을 받으며 우리 시대의 주목받는 작가로 성장하였다.

그녀의 주된 작업은 현대사회의 가족문제를 깊이 있게 천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 대부분이 해체되어 가는 가족과 그 속에서 고립되어 가는 구성원들을 섬세한 필치로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의 의미를 묻는가 하면, 입양을 소재로 삼은 작품을 통해서도 가족과 혈연에 내재된 배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탄생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

그녀는 ‘웅숭깊은 시선과 곱삭은 문체의 작가’로도 문단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우리 언어생활에서 잊혀져가는 토박이말의 맛을 현대 소설에 되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집

『틈새』(2006) 한 권을 펼쳐 읽다보면, ‘물에 젖은 책갈피처럼 희치희치했다’, ‘오달지던 걸음이 타달거렸다’, ‘꿈속에서, 발호해버렸으면 싶은 기억은 양념이 다 삭아 어우러진 신 김치 속에서도 제 맛을 주장하는 생강조각처럼 도드라졌다’ 같은 문장들이 짙은 향내를 타고 흐른다. 언어채집이나 문장 자체의 수련을 통해 획득한 언어가 아니라 나고 자란 고향에서 몸으로 체득한 언어에 가깝다는 게 작가의 전언이다.

“충남 보령에서 8남매의 막내로 자랐고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예스러운 단어들을 일상에서 자주 접한 편이에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려 하면 없는 경우가 잦더라고요.”(<동인문학상> 최종심 인터뷰 중에서)

○ **최시한(崔時漢)** : 1952년 청소면 장곡리에서 태어났다. 서강대 국문과와 같은 과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2년 『우리 세대의 문학』 1집에 「낙타의 겨울」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그 후 「식구들은 모두 무사했다」, 「음지 식물」 등을 선보였고,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같이 주로 청소년들의 갈등과 성장을 다룬 소설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였다. 현재는 숙명여대 국어국문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소설집에 『낙타의 겨울』(1992),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2008/문학과지성사)이 있고, 소설 연구서로 『가정소설 연구』, 『현대소설의 이야기학』, 『소설의 해석과 교육』 그리고 독해력 학습서로 『고치고 더한 수필로 배우는 글읽기』 등이 있다.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은 책읽기를 좋아하고 글을 잘 쓰는 예민한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고2때부터 고3까지 생활을 일기형식으로 써내려간 일종의 성장소설이자 교육소설이다. 열악한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겪는 청소년기의 욕망과 우정, 애정, 고독, 삶에 대한 섬세한 성찰이 다섯 편의 아름답고 정교한 문체의 연작소설집으로 묶였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교사 허병두(서울 송문고등학교)는 추천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최시한의 소설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은 살아간다는 것, 배운다는 것, 커간다는 것 등을 주제로 삼으면서 소설미학을 충분히 살린 수준작이다. 빼어난 감수성과 탄탄한 문장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고민과 갈등, 꿈과 희망을 그려내고 있다. 자신의 교육관을 전면내세운 나머지 자칫 상경해지기 쉬운 종래 교육소설의 한계를 벗어났다”

넓게 보면, 최시한의 소설은 인간과 제도 사이의 권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육소설의 경우, 학교 자체의 권력이 학생들에게 작동하는 양상과 방식을 직조하고 있다. 작가는

이런 학교를 ‘꼭두각시놀음하는 극장’ (「허생전 배우는 시간」) 혹은 ‘수용소나 경마장’ (「섬에서 지낸 여름」)으로 묘사하면서 아름다웠던 아이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든 경쟁과 이기심, 규율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도발적 언어로 저항하고 있다.

“우, 우, 우리는 마, 마라톤 선수, 선수가 아닙니다. 모, 모두 승리, 승리하면 누가, 패, 패배합니까?”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중에서)

### 3) 수필가

○ **강범우(姜凡佑)** : 1922년 함경남도 이원에서 출생한 문학평론가, 수필문학가로 덕성여대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 『한국문학사』, 『세계문학에의 초대』, 『수필문학론』 등이 있고, 작품집으로 『돌부처의 體溫』 외 다수가 있다. 2003년 주산면 삼곡리에 낙향하여 살면서 매주 덕성여대에 출강도 한다.

○ **김 순** : 1953년 보령시 주산면에서 출생하였다. 1996년 <수필과 비평> 신인상으로 등단하였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동작문인협회, 보령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수필집 『수평선 위에 뜬 별들』 (1999), 『동막골 아리랑』 (2007) 등이 있다.

그의 작품 중 「장터의 풍속도」를 살펴보면, 50년대와 60년대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닳새마다 서는 시골의 5일장을 기억할 것이다. 그 당시 꽃무늬가 있는 고무신은 예쁘고도 신어보고 싶은 어린아이들이 선망하는 물건이었으리라. 가난했지만 아름다운 추억이 서려 있는 어린 시절의 풍경이 담겨 있다.

○ **이병남** : 1933년 오천면 소성리에서 태어났다. 1955년 공주사범대학 국문과를 졸업한 후 1962년 <여원사> 수기모집 당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대수필문학상, 한국수필문학상, 노산 문학상 등을 수상한 원로 문인으로 최근 1월에는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지하 1층 전시장에서 [자운紫雲 이병남 개인전]을 열어 화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여성 특유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필치로 작품을 쓰고 있는 그는 많은 수필집을 남겼다. 수필집으로는 『가을이 오는 창가에서』 (1972, 농경출판사), 『고독한 밤에』 (1975, 관동출판사), 『한 점 돌 위에 새긴 이름』 (1981, 교음사), 『추억의 트럼펫』 (1986, 교음사), 『한내로 가는 길』 (1995, 미리내), 『그대로 못다한 사랑』 (1998, 선우미디어), 『미인의 조건』 (1998, 선우미디어), 『고향집의 램프』 (2000, 선우미디어) 등이 있다.

○ 이원복 : 1936년에 보령시 주교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보령시 명천동에서 성장하였으며,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96년에 <교단문학>으로 등단, 그의 작품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인간상실의 현대사회를 그만의 부드러운 필치로 엮어내고 있다. 주요 저서 중에 『사색의 연가』(공저), 『아침 언어가 잠을 깰 때』, 『아내의 한강』 그 외에 다수의 작품집을 출간하였다.

한국시문학상, 노산문학상, 경희문학상, 충청문학상, 교육부장관상, 서울시장상, 국민훈장 석류장 등을 수상하며 칠순이 넘은 연령에도 그의 문학적 열정은 창작 의욕으로 불타고 있다.

#### 4) 아동문학작가

○ 강정규 : 1941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태어나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월간 <소년>과 <현대문학>에 동화와 소설이 각각 추천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세종아동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동화집 『다섯 시 반에 멈춘 시계』, 『짱구네 집』, 『못난 바가지들의 하늘』, 『돌이 아버지』, 『큰 소나무』, 『병아리의 꿈』, 『작은 학교 큰 선생님』 등이 있다.

현재 숭의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겸임교수이며 아동문학 계간지 《시와 동화》의 주간 겸 발행인을 맡고 있다.

#### 5) 평론가

평론 분야는 문학 장르에서 아무나 선뜻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비평적 감수성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 통찰력과 문학적 소양이 풍부하게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단에 큰 획을 그을 만한 보령 출신의 평론가들이 있다.

○ 권영민 : 1948년 오천면 소성리에서 태어났다. 1971년에 <중앙일보>신춘문예에 평론 「Onomatopoeia의 문학적 한계성」이 당선되어 등단하였으며 한국문단 평론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인물이다. 저서로는 『한국현대문학 비평사』, 『한국근대 소설연구』, 『한국민족 문학론 연구』, 『월북문인 연구』, 『북한의 문학』 등이 있다.

두계 학술상, 서울예술 평론대상, 현대문학 평론부문상 등을 수상하였고 서울대학교 교수이며 인문대학장을 역임하였다.

○ **신동욱(申東旭)** : 1932년 천북면에서 출생하였으며 1960년 <현대문학>에 「마법과 미의 영역」, 「현대의 음성」 등이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주요 평론집으로 『한국현대문학론』, 『한국현대비평문학사』, 『우리 시대의 작가와 모순의 미학』, 『우리 이야기 문학의 아름다움』, 『문학의 비평적 해석』 등 많은 평론집을 출간하였으며 제1회 조연현문학상, 연대학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수다한 작품 비평은 물론이고, 특히 신화비평, 원형비평 등의 이론적 토대를 쌓았으며, 비교문학 부문의 활발한 활동으로 학계에 공헌하였다.

연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87년 <비교문학회> 부회장과 1988년 <현대문학> 주간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 4. 재향 문인

### 1) 시인

○ **강대현** : 태안군 안면읍에서 태어나 현재 남포면에서 거주하고 있다. 2001년 <文藝韓國> 시 부문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시인의 섬』(2008)이 있다.

(사)한국문인협회, (사)한국문인협회태안지부,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김단비** : 충북 진천에서 출생하였으며 본명은 김경례이다. 1993년 월간 <문학 공간>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나섰다.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창립회원이었으며 시집으로 『가슴 한웅큼을 비워』(2004)가 있다.

○ **김문경** : 충남 예산군 출생. 2004년에 <한울문학>으로, 2009년에는 문예사조로 등단했다. 처녀작품 『옛날의 금잔디』, 동인지집 『성주산 울림』 2호가 있다.

한울문학충청지부, 문예사조,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내문학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한내문학상, 문예사조 문학상을 수상했다.

○ **김용현** : 충남 보령에서 출생하였고, <문예사조>로 2008년 등단했다. 시집에 『님이 오시는 길』, 동인지집 『성주산 울림』 1,2호가 있다. (사)한내문학회, 문예사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유제** : 1961년 보령시 미산면에서 출생하였다. 2002년 <문예사조>를 통하여 등단하였고 시집으로 『서울역의 봄』, 동인지집 『성주산 울림』 2호가 있다. 2002년 월인문학상, 문예사조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내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김은진** : 1943년 충남 보령시 출생하였고, 2010년 1월 <신춘문예>로 등단하였다. <여성문학보령예지회> 후원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정원** : 1949년 보령시 웅천면에서 출생하였으며 2000년 7월에 <문예사조>를 통하여 등단하였다. 보령시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보령문인협회 지부장을 맡아 보령시 문예창작지원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보령머드축제 연관 사업으로 대천해수욕장에서 매년 해변시인학교를 개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보령시 주산면 소재 보령댐 휴게소 앞에 임영조 시인 시비를 세우는 데 힘썼고, 이문구문학관 건립을 위해 예산 확보 및 빠른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 **문상재** : 1954년 보령시 미산면에서 태어났다. 1992년 월간 <문학 공간>에 박재삼, 김규동, 지광현, 최광호의 추천으로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하였다. 이문구, 이원길, 서순희와 1989년 말부터 보령지방 문학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했으며, 2002년에는 (사)한국문인협회 보령지부를 창립하고 2006년까지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보령의 문학을 제도권 내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였다. 2001년 충남예술상, 2002년 충남문학 작품상, 2005년 만세보령대상, 2006년 충남문학 대상을 수상하였다.

시집으로는 『무엇이 그리워 그대는 찬비로 오는가』(1994), 『육망의 열레』(2004), 『가을 여행』(2007) 등이 있다. (사)한국문인협회, (사)한국시인협회, 충남문인협회, 충남시인협회, 서안시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경희** : 1974년 보령시에서 출생하였다. 한신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2001년 <시안>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였다. (사)한국작가회의, (사)충남작가 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성열** :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하였으며, 2009년 <문예사조>로 등단했다. 동인지집 『성주산 울림』 2호가 있다. (사)한내문학회, 문예사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혜숙 : 전북 진도에서 출생하였고, 2007년 <문예사조>로 등단했다. (사)한내 문학회원, 문예사조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방영순 : 충남 홍성군에서 출생했으며, 2009년 <문학세계>로 등단했다. (사)한국 문인협회보령지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방희자 : 1960년 충남 예산군에서 출생했으며, 현재 보령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2005년 <문예춘추>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시집으로 『이별을 위한 만남 (1995)』, 『그대를 만날 때까지는』, 『시간이 머물어가고 있다』 (2005) 등이 있다.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충남펜문학, (사)한국문인협회, 충청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배윤희 : 경북 구미에서 출생하여, 2006년 <한울문학>으로 등단했다. 공저시집 『내 가슴이 너를 부를 때』가 있고, 동인지 『성주산 울림』 1,2호가 있다. (사)한국문인협회, (사)문화예술교류진흥회, 한울문학충청지부, (사)한내문학회, 문예사조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백도현 : 1963년 보령에서 태어났으며, 2006년 <농민문학>으로 등단했다. 충남 문인협회,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농민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시집으로는 『초보 낚시꾼』 (1999), 『한계』 (2007)-보령시 문예창작지원금수혜작- 등이 있다.

○ 손혜경 : 1956년 서울에서 출생했고, 2005년 겨울 <문예운동>으로 등단했다. 청하문학회, 여성문학 보령예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송계숙 : 1969년 태안군 안면읍에서 출생하였으며, 1977년부터 보령에서 거주하고 있다. 2000년 겨울 여성문학 보령예지회에 가입한 후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11월 보령시 문예창작기금을 지원 받아 시집 『나무기둥의 희망』을 <월간문학>에서 펴냈다.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사)한국작가회의충남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신동근 : 1955년 보령시 웅천읍에서 출생하였다. 2000년 <문예 사조>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섰으며 공주교대와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충남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신양호** : 보령시에서 출생하여 2006년 <문학저널>로 등단했다. (사)한내문학회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오금자** :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으며, 2008년 <문예사조>를 통해 등단했다. (사)한국문인협회, 문예사조, (사)한내문학회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시집으로 『숨어 우는 날의 마침표』가 있다.

○ **용미자** : 1963년 강원도 홍천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 보령시 청라면에 거주하고 있다. 2004년 <시인과 육필>을 통해 등단하였다. (사)한국문인협회, 충남시인협회, 서안시 문학회,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회원으로 활동하며 낭송가로도 활동중이다. 2008년 보령시문예창작지원금을 받아 첫시집 『고백』을 상재했다.

○ **유일하** : 경북 문경에서 출생했으며, 2005년 <시사문단>으로 등단했다. 2006년 <문예사조>로 수필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꿈에 본 그 여자』, 『아내의 빈자리』, 『뜻사랑은 이젠 그만』이 있다. (사)한국문인협회, 세계시문학회, 국제펜클럽 충청회, 문예사조, (사)한내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근모** : 보령시에서 출생하여 1993년 <문예공간>으로 등단하였다. 시집에 『서해 대교의 바람결에』가 있으며, (사)한내문학회, 평택문학회, (사)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덕영** : 보령시 미산면에서 출생하여 2006년 <문예사조>로 등단하였으며, 2007년 <문예사조>로 수필가 등단했다. 시집에 『소초집』, 동인지집 『성주산 울림』 2호가 있다. 번역문으로 『추강집』, 『소현집』, 『조선환여승람(보령편)』, 한시집으로 『우국』, 『호반조인』, 『추수』 등이 있다. 한내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사)한내문학회, 문예사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도선** : 보령시에서 출생했으며, 2007년 <한맥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사)한국문인협회, 보령아카데미수필교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명희** : 1963년 보령시에서 출생했으며, 2008년 월간 <문학세계>신인상을 수상

하며 등단했다.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문학의집,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보령낭송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미숙** : 1963년 보령시에서 출생했으며, 2005년 <문예사조>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였다.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한내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영열** : 1963년 보령시 청라면에서 출생하였으며. 2006년 <문예사조>로 등단했다.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여성문학보령예지회, (사)한내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원길** : 1940년에 남포면 소송리에서 출생한 그는 대천에 살면서 1984년에 <詩와 意識(시와 의식)>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등단하였고 소설가 이문구와 더불어 한내문학회를 창립하였다. 한내문학회 초창기에 회장을 맡아 지방 문학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동인지집 『성주산울림』 1,2호가 있으며 (사)한내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은자** : 보령시 주교면에서 1971년 출생하였고, 1999년 <농민 문학>을 통하여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하였다. 충남문인협회와 충남시인협회 그리고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집으로는 『여울처럼』(1994), 『사람들의 거리에 서면』(1998), 『인간의 사막』(2002), 『쓸쓸한 중심』(2006), 『아름다 운 탁발』(2008)이 있다.

○ **이임구** : 보령시에서 출생했으며, 2008년 문예사조로 등단했다. 동인지집 『성주산울림』 1호가 있으며, (사)한내문학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이정석** : 충북 괴산에서 출생하였으며, 2006년 <문예사조>로 등단하였다.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내문학회원. 문예사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정자** : 충남 천안 출생. 2006년 <창조문학신문>으로 등단했다. 여성문학보령예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준형** : 1960년 천북에서 출생하였다. 한남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2006년에 <문예사조>시 부문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하였고 (사)한내문학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혜실** : 1964년 보령시 청소면에서 출생하였다. 1991년 한내문학 초창기부터 활동했으며, 8인 공저 시집 『살구꽃 피는 고향 언덕』이 있다. 시 낭송가이며 보령 낭송인회,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조춘자** : 충남 천안시에서 출생하였으며 2005년 <문예사조>로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내 빛이 되어 주신』이 있으며, (사)한내문학회, 천안문학회, 문예사조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조성인** : 1965년에 보령시에서 출생하였고, 1989년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6월, 중앙일보 시조지상 백일장에 「소쩍새」가 입선 되었고, 같은 해 제8회 전국한밭시조백일장에서 「탑」으로 장원, 1994년 <시조문학> 봄호에 「탑」이 추천 완료되어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모든 타오르는 것은 아름답다』(1995), 『내 목젓에 이는 그리움』(2002), 『찔레꽃』(2007)-보령시문예창작지원금 수혜작-, 공저 『살구꽃 핀 고향언덕』(2003) 등이 있다. 대전시조시인협회, 대전충남시조문학작가회의, 대전충남작가회의, (사)한국문인협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 **조현곤** : 2005년 <서울 문학>시 부문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사)한국문인협회, 충남문인협회,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서울문학회, 보령낭송인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시집으로 『그리움의 시작』(2006)이 있다.

○ **최관수** : 1952년 보령시 궁촌동에서 출생하였다. 2000년 <문예사조>시 부문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나섰다. (사)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충남문인협회,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만세보령 대상을 수상하였고 시집으로 『귀향하는 새』가 있다.

○ **최옥순** : 전북 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2006년 <육필문학>으로 등단했다.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내문학회, 육필문인협회, 문예운동, 서울시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최양희** : 충남 청양군 남양면에서 출생했으며 월간<문예사조>로 2004년 시, 2006년 소설, 2007년 평론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최양희의 사모곡』(2005), 동인시집 『성주 산울림』 1,2호 등이 있고 단편소설에 「지관과 명당」, 「이승과 저승」, 「호랑이 황팔」이

있다. 문예사조 편집위원이며,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내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예사조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최용락** : 1961년 보령시 출생, 1985년 공주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동인지집 『청보리』, 『그리운 것들이 침묵할 때』, 『성주산울림』 1,2호가 있으며 (사)한내문학회, 비무장지대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 **최정숙** : 보령시 출생. 1999년 <문예사조>로 등단했으며 (사)한내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홍성수** : 충남 서산에서 출생했다. 2006년 <문예사조>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나도 한번 소리내어 울고싶다』, 『천일의 숨소리』가 있고, 동인지집으로 『성주산울림』 1,2호가 있다. 한내문학상, 문예사조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내문학회, 문예사조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홍성익** : 충남 천안에서 출생하였다. 2007년 <한울문학>으로 등단하였다. 2009년 <문예사조> 수필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동인지집 『성주산 울림』 2호, 동인지 『내 가슴이 너를 부를 때』가 있다. (사)한내문학회장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2) 소설가

○ **김나인** : 본명 김동민. 1974년 보령에서 태어났다. 경기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 중에 있다. 2004년 <순수 문학>에 소설 「배꼽아래」로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등단하였으며, 2006년 계간 <문단>에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2006년 제39회 경기학술문예 소설부문 우수작 당선, 2007년 아시아 작가상 소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대전충남작가회의,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설집에 『배꼽아래』(2007), 『파리지옥』(2007), 『개미지옥』(2008), 『나체주의자의 음란소설』(2009)등이 있고, 시집 『술 취한 밤은 모슬포로 향하고 있다.』(2006), 『그 잔인한 사랑, 그 속성에 대하여 나는 죽도록 사랑한다』(2008)가 있다.

○ **나정애** : 1952년 전북 김제시에서 출생했다. 2000년 <오늘의 문학> 수필 부문에 신인상을 받았으며 2002년 <문예사조> 12월호 단편 「작은거인」으로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나섰다. 보령문학회와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의 통합에 공헌한 바 있다. 2003년 문학사랑 인터넷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사)한국문인협회, 보령문인협회회원으로 활동하며 2006년 소설집 『그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를 출간 하였다.

○ **방영주** :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국민대 국문과 및 같은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1980년 북악문학상(국민대학보사) 단편소설 「해명(海鳴)」 당선(소설가 현기영, 평론가 장백일 심사)되어 문단에 나왔다. 또한 1994년 <월간문학>에 단편 「귀로(歸路)」가 당선되기도 하였다. <한겨레문학>에 중편 「거북과 통나무」, 그리고 <시인과 육필시>에 연작시 「흰소를 찾아서」외 2편이 당선되기도 하였다. 소설집에 『거북과 통나무』(1998), 『내사랑 바우덕이』(1999) 장편소설에 『무따래기 상.하』(1998), 『우리들의 천국』(2003), 『카론의 연가 그리고 저승에서 온 여자』(2007), 『국화의 반란』(2007), 『돌고지 연가-춘원 이광수』(2007), 『대무신왕』(2008) 등이 있으며, 현재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이며 윤리위원이다.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내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서희**(본명:서순희) : 1959년 보령 출생, 보령을 작품의 주 무대로 삼으며 글을 쓰는 작가이다. 1981년에 MBC 400만원 고료 「사랑의 계절」 당선과 1992년 『농민 문학』 수필 부문에 당선되기도 했으며 1997년 문예지 <정신과표현>에 단편소설 「늪 속의 사내」를 발표했다. 저서로 소설집 『대천동 영번지』가 있다. 한국작가회의 회원, 충남 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한윤희** : 1962년 경기도 포천에서 출생하였으며 1987년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였다. 1996년 보령으로 이주한 소설가다. 1995년 신동아 논픽션이 우수상으로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섰다. 1996년 보령으로 이주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사)충남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3) 수필가

○ **권정숙** : 2009년 <뿌리문학>으로 등단했으며, 보령수필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명래** : 1948년 계룡시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 보령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2005년 <시와 창작 수필>을 통하여 등단하였고, 2007년 <시조 문학> 시조 부문에 등단하여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달가람시조문학회, (사)한국문인협회 보령지부에서 활동 중이다.

○ **김정자** : 1954년 충남 광천에서 출생하였고 2007년 <수필시대>로 등단하였다. 여성문학보령예지회, 보령수필아카데미에서 활동 중이다.

○ **박미란** : 2009년 <문학시대>로 등단했다. 보령수필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양희영** : 2003년 <문학 산책>으로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나섰다. 호연재문 학상을 수상하였고, 수필집에 『약장 속의 금은화』(2007/보령시문예창작지원기금 수혜작)가 있다.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성낙규** : 경북 출생이며 2004년 <문예운동>으로 등단하였다. 제2회 동서커피문학상(1989)을 수상했으며 수필집 『마음의 정원』(2005)이 있다. 국제펜클럽충남지부,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여성문학보령예지회, 청하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손광야** : 1995년 <창작수필>로 등단하였으며, (사)한국문인협회, 창작수필문학회, 현대수필문학회,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 **이용예** : 1953년 보령시에서 출생했으며 2009년 <문학시대>로 등단했다. 보령수필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정숙** : 1961년 보령시에서 출생하였고, 2007년 수필시대로 등단했다. 여성문학보령예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임남순** : 보령시에서 출생하였고, 2009년 <문예춘추>로 수필가로 등단했다. 2009년 <문예사조>로 등단했으며, 동인지집 『성주산울림』 2호가 있다. (사)한내문학회, 문예춘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장정자** : 2009년 <뿌리문학>으로 등단했으며, 보령수필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최은순** : 보령에서 출생하였고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2005년 12월 <문예운동> 수필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청하문학회, 여성문학보령예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4) 아동문학작가

○ **김진경** : 충북에서 출생하여 청주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였다. 1992년 충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동화 「꼬마화가」가 당선되면서 등단하였다.

저서로는 장편동화 『빈 섬의 비밀』(2007/보령시문예창작지원금 수혜작)이 있다. 한국 아동문학회, 대전충남아동문학회,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용서** : 1960년 보령시에서 출생하였다. 2004년 <시인과 육필 시>로 동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였고,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사)한국문인협회, (사) 한국육필 문예 보존회, 한국아동문학연구회,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안학수** : 1954년 충남 공주에서 출생하여 1962년 대천으로 이주, 현재까지 상주하고 있다. 1993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제비」가 당선되었고, <아동문예지> 동시 부문의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하였다. 『박하사탕 한 봉지』(1997/계몽사) 『낙지네 개흙 잔치』(2004/창작과비평) 등의 동시집을 발간하였다. 한국작가회의 회원과 충남 작가회의 회원이며 충남 아동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최도진** : 보령시에서 출생했으며, 2006년 <문예사조>에 동시를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동인시집 『성주산울림』 1,2호가 있으며, 문예사조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사)한내문학회, 문예사조, (사)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5. 보령의 문학공원

### 1) 성주산 시비(詩碑)공원

성주산 휴양림에는 숲속 길을 따라 49기의 시비를 세워놓고 감미로운 음악도 틀어준다. 휴양림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삼림욕과 함께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포오석에 유명한 시를 조각한 이들 시비는 2000년에 보령시에서 설치하였고 매년 한번씩 ‘시낭송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숲속 길을 따라 세운 시비



한국육필문예비 공원

## 2) 개화리 한국육필문예비[肉筆詩]공원

성주면 개화예술공원에 (사)한국육필문예보존회와 모산미술관 합동으로 오석(烏石)에 유명시인들의 육필시를 조각한 시비(詩碑)를 전시해 놓은 공간이다. 2005년 7월 27일 제1차로 45기의 시비를 세웠고 500기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으며 현재 169기를 완료하였다. 한편 공원 안에는 모산미술관 측에서 세종대왕 어필을 비롯한 사명대사, 황희 등 옛 유명인들의 친필로 된 시비도 다수 세워놓았다.

대상 시인의 선정은 한국육필문예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임영조 시비

○ 보령댐 청기와 휴게공원 내

2007년 7월 보령이 낳은 탁월한 우리 시대의 시인 임영조의 시 정신을 기리고 이후 시인을 능가할 후배시인의 연이은 배출을 소망하며 격조 높은 예향 보령을 가꾸기 위하여 ‘임영조시비건립보령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비건립을 추진하였다(시비건립취지문 인용). 이 때 이미 서울에서는 ‘임영조시비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시비 건립을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었으나 만만찮은 재정 부담으로 벽에 부딪혀 있었다.

그러던 중, 중앙대 이승하 교수와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 지부장이며 보령시의회의

김정원 의원이 만나며 빠른 추진력을 보이게 되었다. 2007년 5월 추가경정예산이 세워지고, 「물」이란 시인의 작품을 서울 측 임영조시비건립추진위원장이며 전 한국시인협회장인 이근배 시인이 직접 글을 썼고 중앙대 양태근 교수가 디자인 및 흉상을 제작하게 된다.

시비가 건립된 장소는 신동엽 시인이 주산중학교 교사였을 때, 학생이었던 임영조 시인이 이곳 보령댐 수리바위 아래로 소풍 왔다가, 신동엽 시인의 주관으로 열린 즉석 백일장에서 장원한 곳이다. 흉상은 서울 측에서 만들었고 시비는 보령시보조금 2천만 원을 받아 제작하였으며 기타 비용은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와 보령의 문학단체 및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하였다.



2007년 7월 27일(금) 오후 2시 충남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보령댐 청기와 휴게공원에서 시작된 시비 제막식에는 한국 시인협회 회장 오세영과 서울측 시비건립추진위원장인 이근배, 고려대 김명인, 오탁번, 한양대 이건청, 서울여대 이승원, 정채원, 추진위 간사 중앙대 이승하 시인 등 시인협회 시인들과 신준희 보령시장을 비롯한 임영조시비 건립보령추진위원장 김정원 지부장 등 2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 6. 보령의 문학 관련 사업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보령은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다수의 전국적인 문학 행사가 열리고 있다.

### 1) 성주산 시 낭송대회

십리에 걸쳐 이어지는 우거진 숲과 계곡을 타고 흐르는 맑고 투명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주산 자연휴양림에서 보령시에서 주최하고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가 주관하는 시낭송대회가 열리고 있다. 유명한 낭송가를 초빙하여 낭송기법도 배우고 낭송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전국에서 참가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본 행사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별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제8회까지 진행되었다.

## 2) 해변시인학교

세계적인 축제인 보령머드축제 연계행사로 2007년 제1회 해변시인학교를 개최하게 되었다. 보령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저명한 한국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수준 높은 문학을 체험하고 잠재된 보령의 문학적 역량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해변시인학교는 2009년 현재 제2회까지 개최되었다. 제1회 해변시인학교 초청강사는 이근배, 이승하(중앙대문창과 교수), 김용택, 이정록 시인이었으며, 주제는 ‘시의 다각적 정의와 시인의 문학적 삶’이었다. 제2회 해변시인학교 강사는 성기조, 오세영, 정호승 시인이었으며, 매년 150여 명의 문인 및 문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또한 보령시의 지원을 받아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3) 보령시 문예창작지원기금 조성

7명(김정원, 김정자, 나정애, 성낙규, 손광야, 임기석,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위원장/김정원)의 심의를 거쳐 보령시에 거주(주민등록자)하며, 순수문예창작 작품집을 출간하려는 자에게 보령시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이다.

(1) 본 기금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작품의 우수성을 평가 받은 자
- ② 작품의 창작성이 우수하고 지역의 문학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
- ③ 연령 순, 등단 순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다.
- ④ 지역 문학단체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본 지원금은 각 문집출간 비용의 70%를 보조하고, 30%는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보령시 문예창작지원기금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2007년 수혜자는 김동민(소설집 『파리지옥』), 김진경(장편동화 『빈섬의 비밀』), 문상재(시집 『가을여행』), 백도현(시집 『한계』), 양희영(수필집 『약장속의 금은화』), 이정숙(시집 『한 줌 목숨 쥐고 산다는 것이 지랄이다』), 조성인(시집 『찢레꽃』) 등 7명이고, 2008년 수혜자는 서 희(소설집 『바다가 보이는 오포리』), 송계숙(시집 『나무기둥의 희망』), 용미자(시집 『고백』), 이은자(시집 『아름다운 탁발』) 등 4명이다.

#### 4) 이문구 문학관 건립

##### (1) 준비위원회 구성

2003년 타계한 『관촌수필』의 명천(鳴川) 이문구(李文求, 1941~2003) 선생 2주기를 맞아 2005년 이문구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주영)가 결성되었다. 범 문단적 문인과 정치, 사회, 재야인사 100여 명으로 조직된 기념사업회 집행위원회(위원장 권영민)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기념사업을 펼쳤다.

기념사업회는 『관촌수필』의 배경인 관촌의 솔밭과 생가, 청라 저수지에 있는 그림 같은 집필실과, 명천의 선조인 토정 이지함을 모신 화암서원 등을 연결한 명천문학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이문구는 “내 이름을 내건 어떤 문학행사도 하지 말고, 문학비 등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한 바 있지만, 권 집행위원장은 “고인의 뜻도 소중하지만, 선배와 후배들에겐 또, 그들의 도리가 있는 법”이라며 “이문구를 기리는 사업의 추진은 문단의 합의사항이고, 유족들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 (2) 보령의 추진위원회

이문구의 고향인 충남 보령에서도 문상재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장과 임기석 예충보령지부장을 중심으로 20여 명이 이문구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2006년 (사)한국문인협회보령지부장 김정원은 같은 해 12월 부지매입비 5억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당초 이문구 문학관 건립을 대천동 생가지 주변 등에 단독 건물로 추진해오던 보령시가 (구)대천역사 내에 조성되는 문화클러스터 안에 77억 원을 들여 복합건물로 조성계획을 선회하며 유족과의 마찰이 빚어져 안타깝기도 했으나 2009년 현재, 대천동에 위치한 구 대천역사(驛舍) 주변에 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설계경기(현상공모)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공모에 들어갔다.

문화·관광지구는 대천역사가 있었던 대천동 4만 1500㎡ 부지에 482억 원을 투입하여 문학관, 서예관, 향토사료관, 서해갯벌생태관, 대천문화원, 야외공연장, 관광홍보관 신축과 주차장을 마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